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의 운(*tychē*)

전현상*

초록 이 글은 투퀴디데스의 『역사』에 등장하는 운(*tychē*)의 성격과 역할을 필로스 전투와 시켈리아 원정 서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글은 운을 초자연적인 행위자로 규정한 콘포드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콘포드는 투퀴디데스가 운을 외부로부터 침입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어떠한 비인간적 행위자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운을 자연적 인과관계를 벗어난 초월적 힘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지성과 계획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나 초월적이지 않은 변수를 지칭한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필로스에서의 행운이 아테나이인들에게 오만과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 시켈리아 원정의 비극적 과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에서 아테나이인들이 겪은 참극을 필로스에서 가했던 일의 비극적 반전으로 묘사하면서, 운이 인간 본성에 내재한 약점을 노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투퀴디데스의 비극성은 초월적 존재가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불변하는 결함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역사적 패턴의 반복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투퀴디데스, 운, 지성, 인간 본성, 비극

1.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표는 투퀴디데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필로스 전투와 시켈리아 원정 서사를 중심으로 ‘운’(tychē)의 성격과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은 특히 콘포드(F. M. Cornford)가 *Thucydides Mythistoricus*에서 개진하고 있는 운에 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운을 대문자 ‘Tyche’로 적으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적 인과계열 밖에서 침입하는 일종의 초자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자(non-human agency)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운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가로서의 투퀴디데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콘포드의 이해가 투퀴디데스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투퀴디데스가 필로스 점령 과정에서 폭풍, 병사들의 갑작스러운 충동, 메세니아인들의 시의적절한 도착 등 여러 운의 요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서사를 구성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필자는 운을 초자연적 힘으로 보는 콘포드의 견해와 달리, 『역사』에 등장하는 운이 자연적 인과 범칙 내에 있으며 단지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일 뿐이라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계획을 상징하는 *gnōmē*와 이를 벗어나는 변수를 지칭하는 *tychē*의 대비를 통해서, 투퀴디데스적 운이 독자적으로 인과작용을 일으키는 행위자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적 예측을 벗어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임을 주장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필로스에서의 행운이 아테나이인들을 오만과 헛된 희망에 빠뜨리고, 이것이 시켈리아 원정에서 과거에 가했던 불운을 그대로 당하게 되는 “비극적 반전”(tragic reversal)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시켈리아에서 아테나이가 겪은 참극을 필로스에서 가했던 일의 비극적 반전으로 묘사하면서, 운이 인간 본성

에 내재한 약점을 노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투퀴디데스의 비극성은 초월적 존재가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불변하는 결합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역사적 패턴의 반복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글의 목표가 콘포드가 그의 저서에서 개진하고 있는 입장 전체에 관한 전면적 비판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콘포드가 비판하고 있는, 투퀴디데스의 역사 해석에 관한 특정한 진영의 입장에 서서, 이 입장을 옹호하고 콘포드를 공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점차로 분명해지겠지만, 투퀴디데스의 역사서술이 가장 근원적인 측면에서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콘포드의 생각에 동의한다. 필자가 콘포드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그 비극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가에 관해서이다. 간단히 말하면, 필자는 콘포드와 달리 그 비극성이 특별히 (콘포드가 이해한 방식에서) 아이스켈로스적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투퀴디데스의 운이 비-자연적 행위자라는, 혹은 그래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논의의 초점이 이 글의 방향을 오해하지 않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펠로스 전투의 전개 과정: 운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원전 425년 봄, 아테나이인들은 에우뤼메돈과 소포클레스를 지휘관으로 하는 40척의 함대를 시켈리아로 파견한다. 그들은 추가적인 임무도 부여받았는데, 케르퀴라 섬의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산속에 있는 망명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도시 내의 케르퀴라인들을 도우라는 것이 그것이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의 함대 60척이 망명자들을 돕기 위해 케르퀴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아테나이인들은 당시 사

인(私人)으로 지내고 있던 데모스테네스를 지휘관으로서 함대에 동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그들이 라코니케 해안을 향해하던 무렵,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인들의 함대가 이미 케르퀴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에우뤼메돈과 소포클레스는 서둘러 케르퀴라로 가려 했지만, 데모스테네스는 먼저 펠로스에 들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나머지 두 지휘관은 이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kata tychên) 폭풍이 몰아쳐 함대를 펠로스로 몰고 가게 된다(4.3.1).

데모스테네스는 즉시 그곳에 성벽을 쌓을 것을 제안한다. 그곳은 성벽을 쌓을 재료들이 풍부하고, 성벽을 쌓기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지적한다. 하지만 에우뤼메돈과 소포클레스는 이 제안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데모스테네스는 다른 사람들과도 자신의 계획을 논의해 보았지만 장군들도 병사들도 설득시킬 수 없었다. 결국 아테나이 함대는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때 한가히 지내던 병사들에게, 함께 모여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생겨났다”(horm enepese)고 투퀴디데스는 기록한다(4.4.1).

성벽을 쌓을 도구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나이 병사들은 온갖 고역을 감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성벽 건설에 몰두한다. 그리고 6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다. 이제 아테나이의 주력함대는 데모스테네스와 6척의 함선을 남겨 두고 케르퀴라와 시켈리아로 서둘러 항해를 재개한다. 그런데 여기서 투퀴디데스는 또 한 번 아테나이인들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에 운의 요소가 작용했음을 부각시킨다. 그는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이 “때마침”(etychon)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고, 펠로스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4.5.1).¹

1 ‘tynchanein 동사 + 분사’ 구문의 『역사』 내에서의 용례들에 대한 분석에 관해서는 A. W. Gomme (1956),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II: The Ten Years War* (Books IV-V.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8-449; V. Giannopoulou

하지만 결국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경로로부터 병력을 모아 펠로스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아티카 원정을 중단하고 병력을 회군시키고, 해군도 집결시킨다. 그들은 펠로스 앞바다에 있는 길쭉한 섬인 스파테리아에 중무장 보병 420명을 배치하여 아테나이 군을 고립시키기로 한다.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의 공격 시도를 파악한 데모스테네스는 방어 준비에 착수한다. 하지만 병력도 소수이고 무인도에서 무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때 아테나이 군은 또 한 번 운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때마침 근처에 있었던”(etychon paragenomenoi) 메세니아인들로부터 무구를 구할 수 있었고, 그들 중 40명 정도의 중무장 보병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4.9.1).

마침내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그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으로부터 아테나이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테나이인들 역시 양쪽 모두에서 이것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라케다이모니아군에서는 특히 브리시다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이들에 걸친 격렬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테나이인들을 패퇴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 그런데 이 전투 과정을 묘사하면서 투퀴디데스는 또 다시 운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그는 “운이 상황의 역전을 만들어 냈다”(es touto...periestē hē tychē)고 말한다.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은 배를 타고 자신의 영토였던 곳에 상륙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던 아테나이인들은 라코니케 땅에서 바다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들과 싸우는 형국이었던 때문이다(4.12.3). 4.14.3에서 투퀴디데스는 이 상황의 역전을 운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이 해전에서는 “각자의 통상적인 방식이 뒤바뀌었으며”(antēllagmenou tou kekaterōn tropou), 아테나이인들은 “현재의 운을 최대한

(2001), “tychē: fortune and chance in Euripides and fifth-century historiography,” Thesis, University of Oxford, pp. 114-119.

활용하고자 했다”(tēi parousēi tychēi hōs pleiston epekselthein).

이때 자퀸토스로부터 온 아테나이 함대가 전투에 합류하면서, 펠로스만 내부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되고, 스파르타 함대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스파테리아 섬에 들어갔던 스파르타 정예병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들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들을 그대로 남겨 놓는다면 그들이 굶어 죽거나 적에게 항복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은 아테나이에 휴전을 제안한다. 하지만 아테나이의 강경파 클레온의 반대로 협상은 결렬된다. 이후 양측은 봉쇄와 보급차단을 둘러싼 장기 대치를 이어간다. 하지만 포위가 길어지자 아테나이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 와중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클레온은 20일 안에 적을 잡아오거나 죽이겠다는 호언장담과 함께 직접 지휘관으로 참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결정적인 운의 작용이 일어난다. 클레온이 도착하기 전, 데모스테네스는 스파테리아 섬 공격을 주저하고 있었다. 섬이 뾰뾰한 숲으로 뒤덮여 있어 매복 공격을 당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테나이 병사들이 섬 외곽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본의 아니게”(akontos) 불을 냈고, 바람이 불어 숲 전체가 타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4.30.1). 숲이 타버리자 데모스테네스는 라케다이모니아군의 위치와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은폐물이 사라진 라케다이모니아군은 아테나이 경보병의 원거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라케다이모니아 정예병들이 항복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292명의 라케다이모니아인이 포로로 잡혀 아테나이로 끌려갔다. 이는 라케다이모니아인은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는다는 그리스 세계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었다(4.40).

3. 운은 초자연적인 행위자인가?: 콘포드의 해석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투퀴디데스가 펠로스 전투의 전개 과정을 기술하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콘포드는 *Thucydides Mythistoricu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투퀴디데스는 운을 일종의 비-인간적 행위자(non-human agency)로 간주했다.²

이 주장의 의미를 자세히 검토해 보기 전에, 콘포드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 콘포드는 투퀴디데스의 펠로스 전투 서사로부터 독자들이 얻게 되는 전체적인 인상은 펠로스의 점거가 단순한 행운(a mere stroke of luck)의 결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콘포드는 동시에 그 서사 내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 보면, 사실 그것은 상당 부분 계획된(designed)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4.3.1에서 투퀴디데스는 데모스테네스가 나머지 두 지휘관에게 펠로스 섬에 상륙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정확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뒤에 두 지휘관은 반대했지만 때마침 발생한 폭풍이 함대를 펠로스 섬에 상륙하도록 만들었다는 식으로 기술함으로써, 그 결과의 우발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 투퀴디데스는 함대가 폭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펠로스 섬에 상륙한 다음에서야, 데모스테네스로 하여금 나머지 두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밝히는 식으로 서술의 순서를 배열시킨다. 펠로스에는 항구가 있고, 메세니아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을 견제하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콘포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정보의 배치를 지연시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펠로스 점령이 치밀한 사전 계획의 실행이

— www.kci.go.kr
 2 F. M. Cornford (1907), *Thucydides Mythistoricus*, London: Edward Arnold, p. 98.

아니라, 우연한 기회를 즉석에서 포착한 결과라고 믿도록 만드는 효과를 위한 투퀴디데스의 서사 전략의 결과물이다.

투퀴디데스는 아테나이외의 병사들이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폭풍으로 발이 묶여 할 일이 없었던 그들에게 생겨난 갑작스러운 충동의 결과라는 식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건설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그들이 이런저런 임시 수단을 동원해 성벽을 건설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콘포드는 이런 서술도 맥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선 데모스테네스 본인이 4.3.2에서 그곳에 성벽을 쌓는 것이 애초부터 그가 원정에 참여할 때 목표로 했던 바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 병사들은 불과 얼마 전 데모스테네스가 성벽 건설을 제안했을 때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랬던 그들이 단지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서 장군들의 명령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 엄청난 중노동을 감내했다는 서술을 과연 어떤 사람이 수궁할 수 있겠는가? 콘포드는 데모스테네스의 설득 혹은 명령이 성벽 건설의 실제적 동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병사들의 충동을 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투퀴디데스는 다시 한번 성벽 건설을 운의 작용으로 만들고 있다.

아테나이 군이 때마침 근처에 있었던 메세니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서술에도 콘포드는 의문을 제기한다. 투퀴디데스는 그들 덕분에 아테나이 군이 무기를 구할 수 있었고, 그들 중 40명 정도의 중무장 보병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4.9.1). 하지만 함대 본진은 이미 떠났고, 남은 병력은 소수였으며, 무기도 없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스파르타군이 공격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아테나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나우팍토스의 메세니아인들이 우연히 도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메세니아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투퀴디데스에 따르면, 그들은 중무장 보병 40명을 태우고 있었고, 아테네 병사들에게 나눠줄 여분의 무기까지

신고 있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략선이 우연히 중무장 보병 40명과 다수의 무기를 신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콘포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투를 목적으로 준비된 병력이었으며, 데모스테네스의 요청을 받고 무기를 준비해 펠로스로 온 것이다. 여기서도 투퀴디테스는 의도적으로 운의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획과 의도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펠로스 전투 서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학자들은 투퀴디테스의 서술이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군사적·지리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스트라슬러(Strassler)는 병사들이 장군의 명령 없이 충동적으로 성벽을 건설했다는 투퀴디테스의 서술에 대해서, 이는 군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반란에 가까운 행위라며 그것의 역사적 사실성을 의심한다.³ 투퀴디테스가 묘사한 스파테리아 섬 주변의 항구 입구 크기와 봉쇄 계획은 실제 지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적 문제는 다음의 둘로 요약된다. 첫째, 펠로스 항구와 스파테리아 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라케다이모니아 군이 이것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둘째, 만약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스파테리아로 군대를 보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을 것이다. 투퀴디테스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설명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빌라모비츠(Wilamowitz)는 투퀴디테스의 정보원이 부정확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오드리(Awdry)는 봉쇄는 스파르타인들 사이에서 떠돌던 일종의 루머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제시한다.⁴ 투퀴디테스의 서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고프(Gomme)는 펠로스 전투에서 벌어진 아테나이 군과 라

3 R. B. Strassler (1990), "The Opening of the Pylos Campaign",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10, p. 113.

4 U. Wilamowitz-Moelendorff (1921), "Sphakteria," *Sitzungsberichte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p. 306-318, p. 307; H. Awdry (1900), "Pylos and Sphacteria",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0, pp. 14-19, pp. 17-18.

케다이모니아 군 사이의 역전 상황에 관한 묘사와 관련해서 그것은 “사소하고 사실이 아니다”(trivial and untrue)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전투 양상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며, 투퀴디데스가 문학적 효과를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⁵ 이 문학적 효과는 펠로스에서의 상황을 그 이후에 벌어진 시켈리아 원정에서의 결정적 순간(7.71.7)과 대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고프와 마찬가지로, 웨스트레이크(Westlake)도 두 장면을 연결시키는 것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두 상황이 밀접하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교는 특별히 적절하지 않다(not particularly apposite)”는 것이다.⁶ 가장 오래된 비판은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뉴시오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그는 투퀴디데스가 펠로스 전투에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고 비판한다. 그곳에서 죽거나 항복한 인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데 무려 300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니키아스의 펠로폰네소스 원정이나 퀴테라 점령 같은 사건에 관해서는 너무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 글의 관심사는 투퀴디데스가 운의 영향력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펠로스 서사를 구성한 원인이 무엇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콘포드의 해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왜 투퀴디데스는 이렇게 운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서사를 채택한 것인가? 콘포드는 두 개의 가능한 답을 제시하고 둘 모두를 거부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투퀴디데스가 그것을 통해 일종의 도덕적 교훈을 제시(moralizing)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펠로스에서의 성공을 계획과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운의 연쇄에 의한 것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들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운에 따르는 성

5 A. W. Gomme (1956), p. 452.

6 H. D. Westlake (1989), *Studies in Thucydides and Greek History*, Bristol, p. 67.

7 Dionysius Halicarnassus, *De Thuc.* 13-14.

공을 거둔 쪽은 오만에 빠지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4.17~18에 등장하는 라케다이모니아 사절단의 말 속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아테나이의 성공을 행운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운 좋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과오, 즉 행운이 지속할 것이라고 믿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행운이 따르는 순간에도 오만에 빠지는 대신 절제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콘포드는 이런 식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이 해석대로라면 투퀴디테스는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콘포드가 보기에 이것은 투퀴디테스가 분별력 있는 인물(a man of sense)이라는 점에 대한 과도한 폄훼이다.

콘포드가 제시하는 두 번째 가능성은 투퀴디테스가 필로스 서사를 악의(malignity)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콘포드는 투퀴디테스의 악의가 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로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를 꼽지만, 두 경우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필로스에서의 최초의 성공은 클레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데모스테네스의 경우 그는 투퀴디테스가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퀴디테스는 자신을 추방한 아테나이에 적의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 이 가능성도 콘포드는 배제한다. 그것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투퀴디테스에 관해 독자들이 가지게 되는 그의 성품에 대한 인상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부정직하고 저열한 동기에 의해서 그가 알고 있던 사실을 왜곡했다고 간주하는 셈인데, 이것은 콘포드가 보기에 투퀴디테스의 도덕적 성품에 대한 과도한 깎아내리기이다.⁸

8 하지만 여전히 투퀴디테스의 서술에 특정 인물에 대한 악의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Abbott는 클레온에 대한 반감이, Van de Maele은 데모스테네스에 대한 적대감이 필로스 서술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한다[G. F. Abbott (1925),

그렇다면 왜 투퀴디데스는 운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필로스 전투를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 콘포드의 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그가 운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떤 비-자연적인 행위자(non-natural agency) 혹은 비인간적 힘(non-human powers)이 역사적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98, 99). 콘포드는 운을 ‘Fortune’이라는 대명사로 일관되게 표기하면서, 그것이 투퀴디데스에서 단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투퀴디데스는 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외부로부터 끼어들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그 자체로는 사건 계열의 일부가 아니며 앞선 사건에 의해 결정된 결과도 아닌, 어떠한 비인간적 행위자(non-human agency)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⁹ 운은 규정되지 않는, 그리고 인간의 통상적인 예지의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하고 비인간적 힘이며, 단순히 알지 못하는 자연적 원인들의 작용, 즉 우주 내의 일반적인 인과 법칙의 작용이 아니라, 전쟁의 결정적 순간이나 자연의 격변 때 발생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개입하는 비인간적 행위자이다.

4. 콘포드 주장의 검토

과연 이것이 투퀴디데스가 이야기하는 운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투퀴디데스의 운은 역사의 행위주체들에 의해서 의도되고 예상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의 발생

Thucydides: A Study in Historical Reality,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pp. 101-105; van de Maele (1980), “Demosthene et Cleon a Pylos (425 avant J.-C.)”, in J.-B. Caron, M. Fortin & G. Maloney (eds.), *Melanges d'études anciennes offerts a Maurice Lebel*, St-Jean-Christosome Quebec, pp. 119-124].

9 F. M. Cornford (1907), p. 98.

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콘포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어떤 인과계열의 밖에 놓여 있고, 선행하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인과적으로 야기되지 않은 독자적인 행위 주체를 의미할 필요가 없다.

우선 투퀴디테스가 언급한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자. 그는 폭풍을 운에 따른 것으로 기술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곧 그가 폭풍의 발생이 자연적 인과의 계열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생각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 투퀴디테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단지 그것이 사건의 주된 서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즉 아테나이인들과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어떤 자연적인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그때 그 시점에 펠로스섬 근처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투퀴디테스는 이 사실을 부인할, 혹은 받아들이 수 없었던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문제의 폭풍이 선행하는 어떤 자연적 원인들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은(*uncaused*) 사건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는 단지 그것이 관련된 인간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같은 장소에서 문제의 폭풍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했을 수 많은 다른 폭풍들을 생각해 보자. 그 폭풍들은 문제의 폭풍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인과적 방식으로 생겨난 것일까? 즉 그 폭풍들은 기후와 관련된 어떤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한 반면, 문제의 폭풍은 그러한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만약 문제의 폭풍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시점에 발생했다면,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 행위자, 그것을 야기한 자연적 선행 원인을 가지지 않았던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퀴디테스의 서술 중 어떤 부분에서도 그 폭풍이 그런 방식으로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 폭풍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발

생한 것이다. 그것이 운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것을 야기한 원인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특정한 장소와 시점이 아테나이 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을 뿐이다.

메세니아인들의 도움을 받은 예는 어떤가? 이것은 폭풍과 같은 자연현상은 아니지만, 폭풍과 유사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즉 메세니아인들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갔다는 사건 자체가 어떤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로 그 시점에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그것에 관한 그들의 판단이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사건은 “그 자체로는 사건 계열의 일부가 아니며 앞서 사건에 의해 결정된 결과도 아닌” 어떤 사건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운에 의한 것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어떤 인과의 계열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테나이인들에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 뿐이다.

스팍테리아 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병사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결과적으로 아테나이 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운의 작용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건을 어떤 초자연적인 원인의 외부로부터의 개입으로 이해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그런 종류의 사건은 몇몇 우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특별히 초자연적인 운의 개입으로 기술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스팍테리아 섬에서의 화재가 운의 작용으로 기술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실수로 발생한 여타의 화재와 달리 전투의 경과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재가 다른 일상적인 화재와 다른 종류의 인과 계열의 결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그것이 통상적인 인과계열의 부분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¹⁰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논점으로 넘어가 보자. 콘포드는 투퀴디테스가 운을 초월적 행위자로 간주한 데에는 투퀴디테스의 시대가 “보편적 인과관계라는 진정한 개념”(true conception of universal causality)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¹¹ 그가 이 표현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원인과 결과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전의 사건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투퀴디테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시대는 이런 종류의 완전히 단혀진 인과관계의 사슬이라는 관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에게 있어서 운은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계열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것 외부에서 시시때때로 그 계열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 그것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독립적 행위자 혹은 힘이었던 것이다. 운은 이렇게 이해될 때 자연법칙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전 사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어떤 독립적 요인이 되는 셈이다.

투퀴디테스가 과연 인과관계의 어떤 일반적인 성격에 관한 명확한 입

10 이런 점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2권 4-6장에서 제시되는 운(*tychē*)에 대한 분석이다. 이곳에서 그는 운으로 일어난(*apo tychēs*) 일의 사례로 시장에 갔다가 예상치 않게 채무자 을을 만나 그로부터 받아야 할 빚을 받게 된 갑의 예를 들고 있다. 이때 정확히 어떤 사건을 운으로 일어난 일로 규정해야 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운으로 일어난 일을 ‘무언가를 위한 것’(to hou heneka)으로 규정할 때 ‘무언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등 여러 해석상의 난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례의 어떤 부분에서도 통상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나는 어떤 초자연적 요인의 개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예에서 일어난 일이 운에 의한 것으로 기술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갑에게, 그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어떤 일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일 뿐이다. 이 예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로는 이영환(2009),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2권, 4-6장에서의 운과 자동성」, 『서양고전학연구』 37, 한국서양고전학회, pp. 193-219.

11 F. M. Cornford (1907), p. 106.

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그 자체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콘포드의 생각처럼, 투퀴디데스가 이해하고 있는 운은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인과계열 가운데 어떤 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의 (실제로 일어난) 세 사건의 인과적 계열을 생각해 보자. A1: 아테나이 함대가 시켈리아로 항해함; A2: 아테나이 함대가 펠로스에 상륙함; A3: 아테나이 함대가 성벽을 건설함. 사건의 전개가 A1으로부터 A2로 진행되게 되는 것에는 폭풍(C1)이라는 사건의 개입이 작용한다. 만약 C1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A2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A2 대신 다른 사건들(아테나이 함대가 시켈리아로 원래의 계획대로 항해했다면 뒤따랐을 여러 사건들,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dots$)이 뒤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건이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이 아닌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의 순서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후자의 인과적 계열 사이에 어떤 빈틈이 존재함을 의미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의 인과 계열은, 그것에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을 발생시킨 것과는 다른 다양한 내적·외적 조건들이 개입해서 현실화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하나의 완결된 인과 관계의 사슬을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C1의 발생을 야기한 자연현상의 법칙적 인과 사슬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후자의 인과 사슬이 개입해서 생겨나는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도, 그것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을 $A1 \rightarrow A2^* \rightarrow A3^* \rightarrow A4^*$ 도, 나름의 방식으로 닫혀 있는 인과관계의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가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투퀴디데스의 운 이해는 인과관계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필자가 보기에, 투퀴디데스가 이야기하는 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유용한 개념적 틀은 *gnōmē-tychē*의 대비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대비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 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¹² 이 대비에서 *gnōmē*는 인간의 판단, 지성, 계획, 결정의 측면, 이에 반해 *tychē*

는 우연성, 불확정성, 변덕스러움을 가리킨다. *gnōmē*가 이성적 판단에 의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요소를 대변한다면, *tychē*는 *gnōmē*로 표현되는 인간의 계획과 의도로 통제되지 않는 예측불가능한 변수를 의미한다. 『역사』에서 *gnōmē*적 요소를 대표하는 것으로 통상 간주되는 인물은 페리클레스이다. 그는 아테나이의 번영을 위해 철저한 계산과 이성적 판단을 강조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그의 *gnōmē*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즉 아테나이에 퍼진 역병에 의해 좌절된다. 이때 역병은 *tychē*를 대변한다. 이제 *gnōmē-tychē*의 대비의 관점에서 펠로스 전투에서 작용한 운을 바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비-인간적이고 초자연적 행위자로 간주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그 전투 과정에서 운으로 일어난 일들은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관련된 행위자들의 예상과 계획을 벗어나 일어난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문체의 *tychē*는 *gnōmē*의 범위 밖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그 일을 초자연적인 행위자의 개입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콘포드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몇몇 지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그의 입장은, 근원적으로, 『역사』 전체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그의 독특한 입장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락들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콘포드의 거시적 관점이 운의 본성에 관한 그의 입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12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gnōmē-tychē* 대비를 중심적 주제로 다루고 있는 L. Edmunds (1975), *Chance and Intelligence in Thucydides*, Harvard University Press를 들 수 있다. Connor 역시 *gnōmē-tychē* 대비를 *gnōmē-orgē* 대비와 함께 『역사』를 구성하는 두 근본적 대립쌍으로 본다[W. R. Connor (1984), *Thucydid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5 n. 9]. 콘포드와 오홍식 역시 *gnōmē-tychē* 대비를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F. M. Cornford (1907), pp. 124, 142; 오홍식(1995), pp. 126-127].

5. 『역사』 전체의 비극성과 운

콘포드가 『역사』에서의 운의 본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입장, 즉 투퀴디데스의 『역사』 전체가 근원적으로 ‘비극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역사』의 내러티브가 비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의 한 부분이다. 콘포드가 그의 책 제목에 사용한 표현, 즉 ‘Thucydides Mythistoricus’가 의미하는 바도 그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자신의 역사를 신화적 이야기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비극,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의 이야기 구조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들어가는 글에서 언명한 대로, 필자는 투퀴디데스가 이야기하는 운이 콘포드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아이스퀼로스적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상술해 보겠다.

우선 콘포드가 펠로스 전투 이후의 『역사』 내러티브가 비극적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주요 지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콘포드는 우선 페리클레스의 사후 아테나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치 지도자로 기술되는 클레온을 펠로스 전투의 우연한 행운(*Tychē*)에 도취되어 있던 아테나이인들에게 탐욕과 헛된 희망(*elpis*)을 불어넣은 유혹자(*Peitho*)의 화신으로 묘사한다. 투퀴디데스에 의해서 클레온은 아테나이인들로 하여금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도록 만들어, 스파르타가 제안한 평화협상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인물로 그려진다. 콘포드는 이 역할을 비극 작품에서 주인공을 파멸로 이끄는 유혹적 힘인 페이토(*Peitho*)의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희망과 욕망은 행운과 결합하여 인간을 눈멀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한다.¹³

콘포드가 그리는 『역사』의 비극적 전개 과정의 다음 단계는 멜로스 대담이다. 여기에서 아테나이인들은 폭력적인 강자의 논리만을 내세우며 정의에의 호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콘포드가 보기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비극 작품에서 등장인물이 파국에 이르기 전에 거쳐가는 전형적인 정신 상태, 즉 병적인 오만(*hybris*)과 맹목(*ate*)의 상태이다. 이 대답에서 아테나이인들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강변하며 정의에 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인다. 또 그들은 행운을 경계하라는 멜로스인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멜로스인들이 이야기하는 희망을 위험한 것으로 경고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시켈리아 원정이라는 더 큰 위험을 앞두고 헛된 희망에 빠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태를 독자들에게 드러낸다.¹⁴

콘포드는 이어서 아테나이를 시켈리아 원정이라는 파멸의 길로 이끈 주된 인물인 알키비아데스를 기만(*apatē*)과 통제 불가능한 욕망(*eros*)을 상징하는 ‘사자의 새끼’(the lion’s whelp)로 묘사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아이스퀼로스의 『아가멤논』에 나오는 ‘사자의 새끼’ 비유처럼, 처음에는 사랑받지만 결국 도시에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또한 스파르타 사절단을 속이는 기만의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는 개인적인 야망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며, 플라톤이 묘사한 ‘참주적 인간’의 전형인 에로스의 화신으로서 아테나이인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열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인물이다. 시켈리아 원정은 거짓된 희망과 통제 불능의 욕망이 추동한 오만의 결과였으며, 크세룩세스가 신의 질투(*phthonos*)와 징벌(*nemesis*)에 의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테나이 군은 군 전체의 궤멸이라는 파국으로 비극의 결론을 완성하게 된다. 시켈리아 원정은 화려하고 오만한 출정식과 함께 에로스에게 가득 찬 채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니키아스

13 F. M. Cornford (1907), pp. 153-173.

14 F. M. Cornford (1907), pp. 174-187.

가 패배의 순간에 ‘신의 질투’를 언급함으로써, 그것은 오만은 과멸로 귀결된다는 신화적 인과관계의 전형을 보여준다.¹⁵

콘포드의 주장대로 과연 『역사』, 특히 그중에서도 필로스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시켈리아 원정의 실패에 이르는 과정은 비극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투퀴디데스는 그 구조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역사』 전체의 서사를 배열한 것일까? 기본적으로 『역사』의 비극성에 관한 콘포드의 기본적인 착상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편이다. 즉 필자는 『역사』 전체가 비극 작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퀴디데스는 전체 서사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주제를 전반적으로 천착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 글의 범위에서 수행되기에는 너무 광대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역사』에서의 운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 초점이 될 것은 『역사』 6-7권에서 제시되는 시켈리아 원정 서사이다.

『역사』 전체의 비극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 중 하나는 투퀴디데스가 시켈리아 원정의 결정적인 장면을 묘사하면서 독자들에게 필로스 전투에서의 상황을 명시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장면은 7.71.7에서 등장한다. 이때 아테나이 군은 쉬라쿠사 동맹군과 시켈리아 원정의 성패를 좌우할 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장시간에 걸쳐 벌어진 전투 끝에 결국 아테나이 군은 마침내 결정적인 패퇴를 겪게 되고, 적들에게 쫓겨 육지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한다. 이때의 상황을 투퀴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테나이인들은 실로 당시와 같은 공황상태(*ekplēksis*)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필로스에서 (라케다이모니아인들에게) 가했던(*edrasan*) 것과 비슷한 일을 겪었던(*epeponthesan*) 것이다. 그때는 라케다이모니아인들이 자신들의 함대를 잃음으로써 섬으로 건너간 대

— www.kci.go.kr

15 F. M. Cornford (1907), pp. 188-220.

원들도 잃었는데, 이번에는 아테나이인들이, 어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육로로 안전하게 탈출할 가망이 없었으니 말이다(7.71.7).” 앞서 언급했듯이, 고프나 웨스트레이크 같은 학자들은 시켈리아의 상황과 펠로스의 상황을 비교하는 투퀴디데스의 서사를 사소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폄하한다. 하지만 그가 굳이 저 둘을 비교했다는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음을 함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투퀴디데스가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는 기묘한 상황의 역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펠로스에서 아테나이 군이 ‘가했던’ 일을 시켈리아에서는 ‘그대로 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극적 반전’(tragic reversal), 즉 단순히 어떤 좋지 않은 귀결에 도달했다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자신이 타인에게 가했던 일을 그대로 자신이 당하게 되거나, 의도했던 결과가 정반대의 파국으로 귀결되는 구조적 역전을 보여준다. 의도와 결과의 역전을 투퀴디데스가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문장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을 살펴보자.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아테나이 군이 겪은 심적인 타격은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에서 벗어나 철군을 시작하는 데에만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때의 아테나이 군의 심적 상황을 투퀴디데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것은 헬라스의 군대에 일어난 가장 큰 반전(*diaphoros*)이었다. 그들은 남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 떠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들은 기도와 파이안을 들으며 출항했지만, 이제는 그와 정반대되는 불길한 전조의 말을 들으며 귀로에 올랐다. 배를 타는 대신 도보로, 함대 대신 중무장 보병을 믿으며 말이다(7.75.7).” 이것은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테세우스가 크레온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킨다. “알아 두시오. 잡는 자가 잡히고, 사냥군인 당신이 운의 사냥감이 될 것임을(1025-1027).”¹⁶

— www.kci.go.kr

16 V. Giannopoulou (2001), pp. 7-9.

6. 시켈리아 원정 서사에서의 운

그렇다면 시켈리아 원정의 파국에 운 역시 영향을 미쳤는가? 미쳤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

시켈리아 원정 서사 중 투퀴디데스는 세 곳에서 ‘*tynchanein* + 분사 구문’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7.2.4이다. 이 장면에서 쉬라쿠사 군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아테나이 군이 쉬라쿠사 항구를 봉쇄하는 이 중 방벽을 거의 완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는 켈립포스가 이끄는 군대가 “때마침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착했다”(etyche...kata touto tou kairou elthōn)고 말한다. 두 번째 장면은 7.73.2이다. 시켈리아 군이 육로로 철수할 것임을 간파한 헤르모크라테스는 쉬라쿠사의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퇴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국자들은 그 생각에 동의했지만, 쉬라쿠사인들이 막(*arti*) 큰 해전을 치른 뒤 휴식을 즐기고 있고, 때마침 그날이 헤라클레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기 때문에(etyche...Heraklei tauten tēn hēmeran thysia ousa)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시켈리아 원정의 운명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사건은 7.50.4에서 묘사된다. 바다와 육지 양면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아테나이 군은 마침내 진영을 옮길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만월이었던 달에 월식이 발생한 것이다. “때마침 만월이었던 달(etyynchane...passelēnos ousa)이 어둠에 가리워졌다(7.50.4).” 월식은 한시를 다루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퇴각을 수습일이나 늦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한다. 우선 많은 아테나이 병사들이 그것을 불길한 조짐으로 생각해 장군들에게 퇴각을 늦출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휘관이었던 니키아스의 성향이었다. 그는 “예언이나 그런 종류의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는”(agan theisasmīō te kai tōi toioutōi proskeimenos) 인물이었고, 그래서

예언자가 정해진 대로 아호레가 세 번 경과하기 전까지는 철군의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¹⁷

위의 세 사례 중 일단 두 번째는 시켈리아의 전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의 상황은 헤르모크라테스로 하여금 새로운 계획을 고안해낼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결과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첫 번째의 사례는 분명 전투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궤립포스의 도착의 적시성을 콘포드 식으로 초자연적인 행위자의 개입으로 읽도록 만드는가라는 물음을 던져 보면, 과연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투 상황에서 적시에 원군이 도착해 전세를 역전시키는 사례는 전쟁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사례이다. 그리고 7.2.4의 서술에서 투퀴디데스가 특별히 그 상황을 이례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단서는 없어 보인다.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세 번째, 월식의 예일 것이다. 투퀴디데스의 서술에서 문제의 월식은 분명 아테나이 군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펠로스에서의 폭풍처럼, 자연 현상이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일견 어떤 초자연적인 행위자의 개입으로 읽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월식의 예는 그 반대의 결론, 즉 투퀴디데스가 운을 어떤 초자연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자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임을 알 수 있다. 투퀴디데스의 서술 어디에서도 문제의 월식이 자연적인 월식 발생의 시점을 벗어난 순간에 이례적으

17 Hornblower는 “예언이나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표현이 미묘하게 경멸적인 뉘앙스를 내포하며, 장군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언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아 부대를 위협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대한 투퀴디데스의 비판적 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S. Hornblower (1996), *A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II: Books V.25 -8.10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42-643].

로 일어났다는 시사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월식은 콘포드가 이해하는 운, 즉 자연적 인과관계의 바깥쪽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해 그것에 침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초자연적 행위자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월식은, 펠로스에서의 폭풍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적 질서를 거슬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그 시점에 발생했을 것이다. 그것이 운으로 기술되는 이유는 그것이 초자연적 인과의 결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필이면 아테나이 군의 이동 시점에 발생했고 그 동시성이 공교롭게도 아테나이 군의 운명에, 그렇지 않았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중대한 차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월식은 그 자체로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테나이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번 경우에는 펠로스에서와 반대로,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이었을 뿐이다.

아울러, 월식의 사례는 투퀴디데스에서의 운의 의미와 관련하여 어쩌면 앞서 언급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논점에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다. 월식은 그 자체로 아테나이 군에 직접적·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특정 인물의 심적 상태 혹은 성격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만약 지휘관이었던 니키아스가 예언이나 그런 종류의 것에 과도하게 연연하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혹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전술적 고려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지휘관이었다면, 월식은 실제 일어난 일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산출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시켈리아 원정의 성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테나이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는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퀴디데스는, 앞서 살펴본 대로, 미묘하지만 단호한 방식으로, 니키아스의 책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니키아스의 성품 전체에 대한 비난은 아니다. 투퀴디데스는 니키아스의 비참한 최후를 전하면서, 그것은 평생토록 덕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에게 가장 걸맞지 않은(*hēkista...axios*) 죽음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7.86.5). 투퀴디데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지 니키아스가, 특히

문제의 그 상황에서, 지휘관으로서 중대한 성향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화시키면, 여기서 투퀴디데스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전하고 있는 것 같다. 운은 인간사의 향방에 종종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특히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은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외적 힘으로서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어떤 약점이나 한계를 노출시키고 현실화하는 어떤 촉매제 혹은 조건으로서 비극을 만들어낸다. 다음 단락에서는 『역사』에서 운이 인간의 본성적 성향에 작용해 비극적 서사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7. 오만, 희망, 욕망, 그리고 운

운이 인간의 본성적 성향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해서 투퀴디데스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인물의 연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소위 뫼틸레네 논전에 등장하는 두 인물,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이다. 기원전 428년 동맹국이었던 뫼틸레네의 반란을 진압한 후, 뫼틸레네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이 논전에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클레온과 상대적으로 온건한 처벌을 주장하는 디오도토스는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동일한 하나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인간은 본성상 운 좋게 성공을 거두면 과오를 범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클레온은 뫼틸레네의 반란이 그들의 오만함(*hybris*)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오만의 원인을 운으로 인해 주어진 번영에 돌린다. “생각지 못한 번영(*aprosdokētos...eupragia*)을 과도하고 갑작스럽게 누리게 된 도시들

은 오만에 빠지는 법입니다(3.39.4).” 클레온은 유사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뫼틸레네의 상황을 행운의 결과로 묘사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행복(*hē parousa eudaimonia*)을 생각하면서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던만 그러지 않았다(3.39.3). 그들이 누렸던 행운은 합당한 만큼의(*katalogon*) 행운(*eutyouchounta*)이 아니라 생각 밖의(*para doxan*) 행운이었다(3.39.4). 클레온의 연설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뫼틸레네인들은 예상치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은 행운에 도취되어 오만에 빠졌고, 그 결과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오만은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과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클레온과 반대로 뫼틸레네에 대한 온건한 처벌을 제안하는 디오도토스도 운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심리적 본성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과오를 범하기 마련인 존재라는 점이다. 그런데 그 과오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충동(*orgē*)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유래한다(3.45.3). 디오도토스는 가장 해로운 두 충동으로 희망(*elpis*)과 욕망(*erōs*)을 꼽는다. 희망은 잘못된 목표로 향하도록 만들고 욕망은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인간을 과오로 이끈다. 그런데 여기에 운(*tychē*)이 영향을 미친다고 디오도토스는 첨언한다. 운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우군 같은 역할을 해서, 실제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을 감행하도록 설득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이런 헛된 기대를 증폭시킨다. 욕망은 운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가정한다(*tēn euporian tēs tychēs hypotheisa*)(3.45.5). 운 좋게 거둔 성공은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고, 욕망은 그 운이 계속 호의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도록 만든다는 것이다.¹⁸

18 뫼틸레네 논전에서 인간 본성에 기초한 수사적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으로는 장시은(2024), 「인간의 본성과 레토릭: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중심으로(투퀴디데스 『역사』 3.37-48)」, 『수사학』 51, pp. 211-236.

『역사』 3권에서의 이런 논의를 접한 상태에서 4권에서의 필로스 전투 서사를 접하게 되는 독자들은 그곳에서 반복되는 운의 작용에 관한 표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둘을 연결시키게 된다. 필자는 그것이 상당부분 투퀴디테스의 거시적인 서사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로스에서의 성공에 운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테나이인들로 하여금 그 성공의 의미를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클레온이 이야기하는 오만이나 디오도토스가 이야기하는 헛된 기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었다고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앞서 잠시 언급되었던, 4.17~18에서의 라케다이모니아 사절단의 말을 통해 또다시 그 인상을 강화하게 된다. 그들 역시 행운으로 얻어진 성공이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8. 아이스퀼로스적 비극과 신적 징벌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투퀴디테스적 운이 자연적 인과 계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초월적 행위자로 간주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로 인간을 비극적 상황에 빠뜨리는 외적 힘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확장시키는 조건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단락에서는 콘포드의 해석과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의 추가적 논점을 잠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논점은 투퀴디테스의 역사 내러티브 전체가 특히 아이스퀼로스적인가 하는 것이다. 콘포드는 투퀴디테스의 역사 내러티브의 구조가 비

19 『역사』 5권에서의 멜로스 대담 중 아테나이의 사절단이 운의 영향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그리고 『역사』 6-7권에서 서술되는 시켈리아 원정에서 아테나이인들이 보이는 과도한 자신감 역시 운이 인간심리에 미치는 영향의 예시라 할 수 있다.

극적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가 아닌 아이스퀼로스의 비극과 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콘포드는 우선 비극 작품을 구성하는 두 개의 평면(plane)을 구분한다. 그중 하나는 배우들이 행위하고 현실에서의 사건들이 벌어지는 특수하고 시간적인 평면이고, 다른 평면은, 보다 상위의 것으로, 합창단의 노래 속에서 표현되고, 제우스와 같은 신들, 그리고 휘브리스, 페이토, 네메시스, 아테와 같은 추상 개념이면서 실재성을 가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머무는 보편적이고 초시간적인 평면이다. 콘포드가 보기에, 후기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서는 이 두 평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가 투퀴디데스의 서사가 아이스퀼로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아직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현실 세계와 동등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왜 그가 튀케를 비-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행위자로 간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앞서 언급된 휘브리스, 페이토 등의 것들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콘포드가 보기에, 비극 양식이 아이스퀼로스로부터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으로 발전해 가면서, 저 두 평면의 간극은 점차 심화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창단의 합창은 독립적인 지위를 잃고 점점 더 행위들 사이의 간주곡과 비슷한 것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에우리피데스가 추구한 리얼리즘은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상위의 평면을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소포클레스와의 대비는 어떠한가? 콘포드가 보기에, 아이스퀼로스과 소포클레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이 측면에서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에서의 등장인물은 상대적으로 더 추상적이고 하나의 정념 상태가 의인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콘포드는 클레온을 그러한 단순화된 캐릭터의 예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극적인 개연성이 없는 연설을 하는 인물, 그것을 통해 단순히 저자인 투퀴디데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소포클레스 비극의 등장인물은 더 복

합적이고 더 개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의 인물들은 너무 인간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²⁰

세 비극작가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이 글에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대한 콘포드의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이 글의 지금까지의 논의는 투퀴디데스의 서사가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보다는 아이스켈로스적이라는 콘포드의 결론 역시도, 최소한 운의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소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투퀴디데스가 이야기하는 운은 현실세계의 사건들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 사건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운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니키아스의 예가 보여주듯, 특정한 성격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비극적 결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투퀴디데스의 역사 서사가 시켈리아 원정의 파멸적 결과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콘포드의 경우, 그는 그것을 일종의 네메시스(*Nemesis*)로 규정한다. 네메시스는 오만에 빠진 인간에 대한 초월적인 힘의 응징을 가리킨다. 그것은 에로스의 뒤를 따르는 비가지적이고, 집요한 영적 존재이며, 『역사』는 필로스에서의 행운으로부터 시작되어 쉬라쿠사 채석장에서의 네메시스로 귀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구성한다.²¹

콘포드의 해석과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해석으로 오홍식의 해석을 들 수 있다. 오홍식은 기본적으로 『역사』에서의 튀케가 초월적 행위자라는 콘포드의 해석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의 논의를 전개한다. 하지만 튀케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콘포드가 『역사』의 비극적 서사를 *Hybris-Nemesis*

20 F. M. Cornford (1907), pp. 139-148; 242-243.

21 F. M. Cornford (1907), p. 219; p. 224.

구도로 이해한다면, 오홍식은 그것을 *Nomos/Dikaion-Timōria* 구도로 이해한다. 즉 그는 『역사』에서의 튀케를 정의를 수호하는 징벌의 도구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운은 신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의를 어긴 인간이나 국가에 징벌을 가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다. 그는 운의 개입으로 과거에 저질러진 불의가 벌을 받는 두 사례로 펠로스 전투와 시켈리아 원정을 예로 든다. 펠로스 전투의 경우, 스파르타인들이 기원전 431년 테바이의 플라타이아 침공을 방조했던 것이 그들이 범한 불의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로 그들은 펠로스에서 운의 개입을 통해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다. 시켈리아 원정의 경우, 그것은 아테나이인들이 기원전 416년 멜로스에서 벌인 대규모의 학살, 그리고 멜로스인들이 신으로부터 오는 운에 호소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징벌로 해석된다. 이 경우 운은 월식의 발생이라는 방식으로 아테나이 군의 전멸이라는 참혹한 결과에 개입하고 있다. 오홍식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투퀴디데스는 “정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하여 (...)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존재를 믿고 있었으며 그것을 티케로 보고 있었”다.²² “티케는 전투에 개입하여 이전에 정의를 어겼던 나라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김없이 징벌을 내리기 때문이다.”²³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투퀴디데스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결론 내린다. “투퀴디데스가 <역사>의 저술을 통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한 것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측가능이라기보다는 전쟁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 즉 정의가 있으며 정의가 지켜져야만 공존할 수 있다는 교훈이라 하겠다.”²⁴

오홍식의 해석은 투퀴디데스의 생각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 것일까? 콘포드의 운 이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듯이, 오홍식의 해석은, 콘포드의 그것에 비해서, 『역사』에서의 운을 한층 더

22 오홍식(1995), 「투퀴디데스의 티케(τυχη)관(觀)」, 『서양사론』 46, p. 129.

23 오홍식(1995), p. 160.

24 오홍식(1995), p. 140.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자 혹은 힘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투퀴디데스의 실제 생각으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홍식의 해석은 불의는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응분의 벌을 받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투퀴디데스의 생각은 그러한 엄격한 응보의 법칙보다는 다소 느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생각되는 한 근거는 앞서도 잠시 언급된 니키아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그의 평가이다. 그는 니키아스의 비참한 죽음이 'hēkista...axios'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때로 전적으로 부당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내포한다. 투퀴디데스의 비극성은,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든, 이런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것에 대한 승인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9. 나가는 글: 『역사』의 비극성

투퀴디데스의 역사가관이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필자는 그 근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의 역사가관은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비극성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과 그것이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 때문에 성립되는 비극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결함과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패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비극성이라고 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퀴디데스는 이례적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명한 두 대목에서 공히 영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역사 서술 방법론을 밝히는 다음의 문장에서이다.

“내 기록에 신화적인 요소(*mythōdes*)가 없어서 듣기에는 재미가 덜해 보

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to anthropinon*)에 따라 언젠가 다시 일어날 같은 식의 유사한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명확한 진실을 고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기록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에게서는 충분할 것이다. 이 작품은 당장의 찬사를 위한 경쟁용 글(*agônisma*)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물(*ktēma es aei*)로서 저술된 것이다(1.22.4).”

두 번째는 케르퀴라 내전의 비참한 현실을 요약하는 다음의 문장에서이다.

“내전으로 인해 도시들에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heōs an hē autē physis anthrōpōnē*) 앞으로도 항상 일어날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끔찍함의 정도가 더하거나 덜할 것이고, 그 양상 또한 다를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는 국가나 개인이 더 나은 판단력(*gnōmas*)을 가지는데, 이는 그들이 부득의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akousious anankas*)으로 전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은 일상의 풍요로움을 빼앗아 감으로써, 폭력적인 교사(*biaios didaskalos*)가 되고, 대중의 걱정을 당면한 상황과 유사해지도록 만든다(3.82.2).”

투퀴디데스는 등장인물들의 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위의 예에서처럼 분명한 자신의 언어로, 인간의 본성을 탐욕에 빠지기 쉽고, 복수의 감정에 지배되며, 헛된 희망에 늘 사로잡히는 취약한 것으로 그린다. 이런 점에서 투퀴디데스의 『역사』가 가진 비극성의 핵심은 그가 ‘*to anthropinon*’ 혹은 ‘*physis anthrōpōnē*’라 부르는 것에서 발견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비극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물론 운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살펴봤듯이 투퀴디데스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하

지만 이 글의 논의 속에서 필자가 보이기를 원했던 바가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면, 투퀴디데스의 운은 콘포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으로 인간사에 침투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통상적인 전개에 타격을 가하는 어떤 초월적이고 외적인 폭력적 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야기하는 운은 오히려 인간성에 내포된 어떤 약점이나 불완전성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환경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이 인간적 본성을 불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반복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이것은 운의 영향을 거의 불가피하고 운명적인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내해야 할 이 비극의 필연성은 초월적이라기보다는 내재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투퀴디데스의 운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비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오흥식(1995), 「투퀴디데스의 티케(τυχή)관(觀)」, 『서양사론』 46, pp. 125-179.
- 이영환(2009),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2권, 4-6장에서의 운과 자동성」, 『서양고전학 연구』 37, pp. 193-219.
- 장시은(2024), 「인간의 본성과 레토릭-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중심으로(투퀴디데스 『역사』 3.37-48)」, 『수사학』 51, pp. 211-236.
- Abbott (1925) *Thucydides: A Study in Historical Reality*,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td.
- Awdry, H. (1900), "Pylos and Sphacteria," *Journal of Hellenic Studies* 20, pp. 14-19.
- Bedford, D. & Workman, T. (2001), "The Tragic Reading of the Thucydidean Traged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p. 5167.
- Connor, W. R. (1984), *Thucydid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rnford, F. M. (1907), *Thucydides Mythistoricus*, London: Edward Arnold.
- Crane, G. (1998), *Thucydides and the Ancient Simplicity: The Limits of Political Re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 Romilly, J. (1963), *History and Reason in Thucydides*, Oxford: Oxford University

- Press.
- Dewald, C. (2005), *Thucydides' War Narrative: A Structural Stu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dmunds, L. (1975), *Chance and Intelligence in Thucydid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annopoulou, V. (2001), "tychē: fortune and chance in Euripides and fifth-century historiography," Thesis, University of Oxford.
- Gomme, A. W. (1956),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Vol. III: The Ten Years' War (Books IV-V.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rnblower, S. (1996), *A Commentary on Thucydides*, 3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nter, V. (1973), *Thucydides: The Artful Reporter*, Toronto: Hakkert.
- Lebow, R. N. (2003), "Thucydides and War," in *The Tragic Vision of Politics: Ethics, Interests and 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51-14.
- Macleod, C. (1983), *Collected Essay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od, T. (1998), *Thucydides: Narrative and Explan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s, M. A. (2011), "The Topography of the Pylos Campaign and Thucydides' Literary Themes," *Hesperia* 80.1, pp. 157-168.
- Stahl, H.-P. (2003), *Thucydides: Man's Place in History*, Swansea.
- Strassler, R. B. (1990), "The Opening of the Pylos Campaign,"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Vol. 110.
- Usher, S. (tr.) (1974-1985), *Dionysius of Halicarnassus: Critical Essays*, 2 vol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an de Maele, S. (1980), "Demosthene et Cleon a Pylos (425 avant J.-C.)," in Caron, J.-B., Fortin, M. & Maloney, G. (eds.), *Melanges d'études anciennes offerts a Maurice Lebel*, St-Jean-Chrysostome (Quebec), pp. 119-124.
- Westlake, H. D. (1974), "The Naval Battle of Pylos and its Consequences," *The Classical Quarterly*, Vol. 24.
- Wiedemann, T. E. J. (1985), "Thucydides on Defeat at Pylos and Sphacteria," *Liverpool Classical Monthly*, Vol. 10.
- Wilamowitz-Moelendorff, U. (1921). "Sphacteria," *Sitzungsberichte der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p. 306-318.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ABSTRACT

Fortune (*tychē*) in
Thucydides' *History*

Chun, Hunsang*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nature and function of “fortune” in Thucydides' *Histo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ylos campaign and the Sicilian Expedition. The paper critically evaluates F. M. Cornford's interpretation, which posits that Thucydides viewed fortune as a “non-human agency” a non-natural power intervening from without to alter the trajectory of events. Contrary to this view, the author contends that fortune in Thucydides does not signify a supernatural force independent of the causal chain. Rather, it denotes an “unpredictable variable” that falls outside the scope of human intelligence and rational planning. Furthermore,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fortuitous success at Pylos fueled Athenian hubris and illusory hope, setting the stage for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Sicilian Expedition. Thucydides characterizes the disaster in Sicily as a “tragic reversal” of the success Athenians previously enjoyed at Pylos, illustrating that fortune serves as a catalyst that uncovers and amplifies inherent limitations in human nature. Ultimately, the tragic quality of Thucydides' work resides not in divine retribution, but in the structural tragedy arising from the immutable defects of “human nature” and the resulting recurrence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of historical patterns.

Keywords Thucydides, Fortune, Intelligence, Human Nature, Tragedy